

2018년 8월 2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속 상승 이번 주 있을 무역분쟁 관련 주요 일정을 앞두고 관망

차별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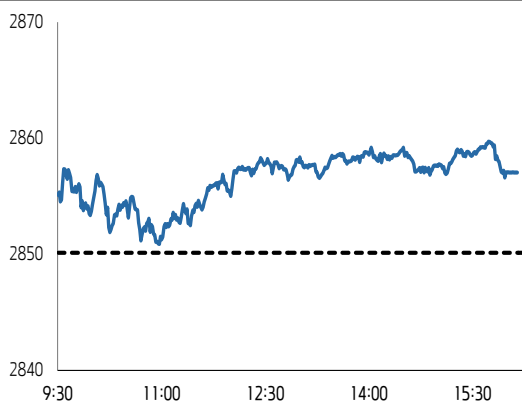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국-중국 무역분쟁 관련 협상을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상승. 특히 무역에 민감한 산업재 섹터가 상승을 주도. 반면, 기술주는 차이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다우 +0.35%, 나스닥 +0.06%, S&P500 +0.24%, 러셀 2000 +0.34%)

글로벌 증시는 22~23 일 있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그러나 중국 언론들이 무역분쟁의 '장기화', '강경화' 우려를 표명한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 특히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화교들 앞에서 연설을 단행.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무역분쟁이 단순한 관세 부과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점이 부담.

2 분기 실적시즌이 끝나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터키 리스크 등 증시 주변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며 이번 주 있을 주요 일정을 기다린 모습. 특히 20~23 일 있을 미국 무역대표부의 2 천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관련 공청회, 22~23 일 있을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23 일 미국의 16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 등을 감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이슈가 시장 변화를 이끄는 모습.

이런 가운데 시장은 주요 일정을 기다리며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진 양상. 최근 상승을 이어가던 애플(-0.97%)의 경우 2019 년 아이폰 매출이 예상보다 10%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 애플 관련주들도 동반 약세. 한편, 반도체 업종은 마이크론(+2.04%)이 반등에 성공한 반면, 인텔(-1.27%)은 하락하는 등 동일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짐. 대체로 주요 일정을 앞두고 기업별 이슈에 따라 차별화가 펼쳐진 양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47.88	+0.04	홍콩항셱	27,598.02	+1.41
KOSDAQ	769.78	-0.33	영국	7,591.26	+0.43
DOW	25,758.69	+0.35	독일	12,331.30	+0.99
NASDAQ	7,821.01	+0.06	프랑스	5,379.65	+0.65
S&P 500	2,857.05	+0.24	스페인	9,468.60	+0.54
상하이종합	2,698.47	+1.11	그리스	712.61	+0.32
일본	22,199.00	-0.32	이탈리아	20,470.97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하락

나이키(+3.05%)는 투자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 펩시코(-0.10%)는 소다스트림(+10.67%)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소폭 하락 했으나 소다스트림은 급등 했다. N비디아(+1.23%)는 최신 지포스 RTX 20 시리즈 GPU를 공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AMD(+1.06%), 마블 테크(+0.30%) 등도 동반 상승 했다. 마이크론(+2.04%)은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고성장 시장이 PC 및 스마트폰 수요 둔화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나오며 상승했다. 넷플릭스(+3.46%)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알파벳(+0.50%)도 동반 상승 했다. 반면, 인텔(-1.27%)은 부진했다.

테슬라(+0.96%)는 JP모건이 안전하지 못하다며 주가 급락을 전망하자 하락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애플(-0.97%)은 2019년 아이폰 판매량이 예상보다 10%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큐로브(-4.07%), 스카이웍(-0.95%), 브로드컴(-1.22%) 등 관련주도 동반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03%	대형 가치주 ETF	+0.41%
에너지섹터 ETF	+1.29%	중형 가치주 ETF	+0.47%
소매업체 ETF	+1.43%	소형 가치주 ETF	+0.29%
금융섹터 ETF	+0.32%	배당주 ETF	+0.48%
기술섹터 ETF	-0.15%	변동성 ETF	-1.80%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3%	대형 성장주 ETF	+0.21%
인터넷업체 ETF	+0.61%	중형 성장주 ETF	+0.47%
리츠업체 ETF	+0.12%	소형 성장주 ETF	+0.25%
주택건설업체 ETF	+0.33%	신흥국 고배당 ETF	+0.16%
바이오섹터 ETF	-0.17%	신흥국 저변동성 ETF	+0.21%
헬스케어 ETF	+0.33%	하이일드 ETF	+0.08%
곡물 ETF	-0.97%	물가연동채 ETF	+0.20%
반도체 ETF	-0.14%	Long/short ETF	-0.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37.80	+0.66%	-1.76%	-2.44%
소재	368.75	+0.72%	+1.27%	+1.47%
산업재	643.80	+0.64%	+2.60%	+3.58%
경기소비재	900.29	+0.62%	+0.91%	+0.98%
필수소비재	563.93	-0.03%	+3.28%	+4.57%
헬스케어	1,056.22	+0.31%	+1.91%	+5.03%
금융	468.32	+0.35%	+2.00%	+1.01%
IT	1,277.20	-0.15%	-0.17%	-0.50%
통신	157.89	+0.08%	+3.93%	+8.03%
유틸리티	274.22	-0.35%	+2.10%	+4.12%
부동산	209.06	+0.06%	+2.96%	+4.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별 차별화 속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0.03%, MSCI 신흥 지수도 0.45%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359 계약)에 힘입어 0.20pt 상승한 289.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4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모든 업종이 상승하기 보다는 개별 이슈에 반응을 보이며 차별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2~23 일 있을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 또한 큰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개별 업종 및 종목별 이슈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미 증시에서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던 마이크로론은 반등에 성공 했다. 일부 헤지펀드가 다운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일시적이고 덜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데 따른 결과였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고성장 시장이 PC 및 스마트폰 수요 둔화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한국 관세청이 20 일까지의 수출입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10 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결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전일 중국 증시가 인프라 투자 증가 및 상품시장 강세에 힘입어 1.11% 상승 했다. 이 또한 투자심리를 개선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 일정을 앞두고 종목별 차별화 속에 반등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물가지수 예상 하회

독일 7 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mom +0.4%) 를 하회한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다. 전년 대비로는 3.0% 상승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국채 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변화요인이 제한된 가운데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표명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미 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다면 해당국에 대해 2 차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시리아 내전이 사실상 마감되었다는 소식 여파로 상승은 제한 되었다. 한편, 미 에너지부는 1,100 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매각 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미 발표되었던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재차 반등에 성공하는 등 변동성이 컸다.

달러지수는 최근 강세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들어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 또다시 비판을 가한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2% 약세를 보였으며, 터키 리라화도 1.1%, 러시아 루블화도 0.3%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 비판을 가하자 하락 했다. 더불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국 경제는 양호하지만, 무역분쟁과 대외 이벤트로 인한 경기 하향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한번의 금리인상이 맞다” 라고 주장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 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9% 하락 했으나, 철근은 0.99%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6.43	+0.79	-1.15	Dollar Index	95.818	-0.29	-0.59
브렌트유	72.21	+0.53	-0.55	EUR/USD	1.1481	+0.38	+0.62
금	1,194.60	+0.88	-0.36	USD/JPY	110.06	-0.40	-0.58
은	14.670	+0.27	-2.08	GBP/USD	1.2793	+0.35	+0.17
알루미늄	2,055.00	+1.23	-1.30	USD/CHF	0.9913	-0.45	-0.21
전기동	5,991.50	+1.11	-2.63	AUD/USD	0.7336	+0.31	+0.91
아연	2,377.50	-0.50	-4.25	USD/CAD	1.3047	-0.11	-0.66
옥수수	376.50	-0.59	+1.62	USD/BRL	3.9576	+1.22	+1.89
밀	562.50	-2.98	+1.63	USD/CNH	6.8368	0.00	-0.90
대두	893.25	+0.06	+2.82	USD/KRW	1123.10	-0.16	-0.51
커피	100.95	-3.58	-7.64	USD/KRW NDF 1M	1117.40	-0.15	-1.6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15	-4.51	-6.32	스페인	1.386	-6.00	-6.40
한국	2.405	-2.20	-9.10	포르투갈	1.786	-5.80	-4.90
일본	0.104	+0.60	+0.30	그리스	4.295	-1.70	+4.70
독일	0.302	-0.30	-0.90	이탈리아	3.010	-10.50	-8.50